

6,846억원 투입, 뿌리산업의 활력 회복 지원

- 정부,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확정
- 인력확보·R&D·공정혁신·DX전환·생태계조성 종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6,846억원의 범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실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인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방안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립했다.

뿌리업계는 대다수 소규모 기업이 갖는 인력부족, 저생산성 등의 고질적 문제에도 최근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놓인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위기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 ▲기술 혁신과 공정 지능화,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매칭 프로그램 도입과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지정*을 새롭게 추진하고, 유능한 외국인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추가로 지정한다.

* 주소, 금형, 용접 등 교육 역량을 갖춘 조합, 대학을 지정('25년 4개)

** '24년 12개 → '25년 14개 목표('25년 하반기 공모 예정)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들을 위해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정책자금 우대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공장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전문가 입지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술 혁신과 공정 지능화를 통해 뿌리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한다.

기술 혁신으로 첨단·주력 산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15개를 올해 8개를 시작으로 6년간 개발하여 보급한다.

뿌리공정이 지능화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자동화, 지능형 공정전환, 로봇 도입 등 첨단 생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시흥(공정혁신시물레이션), 구미(금형), 성주(열처리) 등에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끝으로, 지역 중심의 협업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기적이고 공고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업하는 지역산업 연계, 공용 장비·시설 구축 등 공동해결 과제를 지원한다.

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신규 거래와 기술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매칭과 제품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뿌리업계가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 고】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주요내용

【별 첨】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뿌리산업팀	책임자	팀 장	강은구 (044-203-4905)
		담당자	사무관	방만희 (044-203-490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① (성장 지원) 인력 확보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청년취업 촉진 및 외국인력 체류자격 지원을 강화하고, 재직자 대상 교육* 여건을 개선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동훈련센터 과정 운영, 뿌리분야 교육센터 구축 등
- 공장 신증설 컨설팅(무료), 정책자금 우대, 신규 수요처 발굴 지원 및 단계별 성장 가이드 제공 등 다각적 성장을 지원

② (혁신역량 제고) 특화 R&D 본격 추진, 공정혁신 및 DX전환 지원

- 첨단·주력 산업 공동활용 핵심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8개 분야 핵심기술과 공정효율화기술 개발 본격 추진*
 - * 「차세대 공동·핵심뿌리기술개발사업」('25.~'30./'25년 77.1억원, 25개 과제)
- △ 뿌리공정 설비 지능화 시스템 구축, △ 자동화 설비 도입, △ 첨단제조로봇 실증·보급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
 - *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30억원) / 제조기반기업 공정 자동화 지원(71.25억원) / 첨단제조로봇실증(77.4억원)
- 공정 시뮬레이션, 공정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통해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을 밀착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 구축
 - *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80억원) /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30.75억원) / 친환경 표면처리 소재 및 실증 기반구축(15억원)

③ (생태계 강화) 지역 혁신활동 지원 및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심으로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 단위 운영위원회*를 신설·운영
 - * 14개 광역지자체 운영위원회(연 4회), 5개 권역별 운영위원회(신설, 연 2회)
-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 및 공정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지능형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 플랫폼 구축(20억원)